

# 두피 덮는 각질·손발톱 ‘오목현상’... ‘건선’ 의심해야

## 건강 바로 알기 건선

### 신봉석 조선대병원 피부과 교수

건선은 겉으로 드러나는 병변의 특성상 환자들에게 사회적·정서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질환으로, 현재 국내 환자는 15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최근 미디어를 통해 건선이 자주 소개되며, 질환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건선을 팔다리에 각질이 생기는 피부병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건선은 면역체계의 이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만성 질환으로, 종류만큼이나 발병하는 부위 역시 다양해 전신 피부의 모든 위치에 나타날 수 있다.

근래에는 연구 결과들을 통해 건선이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밝혀지면서 건선은 더 이상 단순한 피부병이 아닌 신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신질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두피 건선, 다른 부위로 확산되거나 탈모로 이어지기도=건선 중에서도 두피에 발병하는 두피 건선은 전체 건선 환자의 50~80% 정도가 증상을 경험할 정도로 흔히 나타나는 질환이다. 경증의 경우에는 가늘고 작은 인설(피부에서 하얗게 떨어지는 부스러기)이 발생하는 정도이지만, 중증이 되면 두껍고 딱딱한 각질이 두피의 상당 부분을 덮는 수준에 이르러 환자에게 고통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피부병 아닌 신체 전체에 영향 미치는 전신질환...건선성 관절염 유발도 난치병 인식 자가치료·민간요법 의존보다 전문의 상담 조기치료 받아야

두피 건선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헤어 라인(Hair line)을 넘어 이마와 목 뒤, 귀 근처로까지 퍼지기도 한다.

조선대병원 피부과 신봉석 교수는 “두피 건선은 자칫하면 지루성 피부염과 같은 타 피부 질환과 혼동될 수 있지만, 지루성 피부염이 노랗고 기름진 형태로 나타나는 반면 두피 건선의 경우 은회색의 광택이 나는 병변과 함께 인설 제거 시에 출혈이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다”며 “두피 건선이 발생하면 가려움증은 물론 탈모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 저하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손발톱 모양 변하고, 피부와 분리되고...건선성 관절염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손발톱 건선=손발톱 상태의 변화는 건선 환자의 50% 이상이 경험하는 증상이다. 손발톱 건선에는 여러 가지 징후가 있는데, 손발톱에 얇거나 깊은 함몰이 발생하는 ‘오목 현상’이 대표적이다. 그 밖에도 손발톱 색깔의 비정상적 변화, 부스러짐, 들림, 피 고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손발톱이 두꺼워지거나 피부와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환자들은 일상 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고, 정상적인 손발 사용이 어려워져 삶의 질 또한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의료진들이 강조하는 손발톱 건선의 또 다른 심각성은 건선의 대표적 합병증인 건선성 관절염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신봉석 교수는 “손발톱 건선이 있는 경우 관절염까지 동반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 건선성 관절염 환자의 80% 정도가 손발톱 변형을 경험한다” 또 “건선성 관절염이 발생하면 관절에 붓기 및 통증 등이 나타나는데, 완치가 불가능할뿐더러 영구적 관절 손상까지 불러올 수 있어 환자의 부담이 매우 큰 질환”이라 경고하며 건선성 관절염의 예측 인자인 손발톱 건선의 조기 진단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수 부위 건선, 치료 쉽지 않지만, 다양한 치료 옵션 나와 있어=안타깝게도 두피와 손발톱 건선은 질환의 특성상 치료가 쉽지 않은 축에 속한다. 하지만 다행히 최근 건선 치료에서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는 생물학적 제제의 등장으로 두피와 손발톱 건선과 같은 특수 부위 건선까지 상당한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신봉석 교수는 “특수 부위 건선이 건선 중에서도 치료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 적용 가능한 치료법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라고 강조하며, “생물학적 제제의 경우, 두피나 손발톱 등 특수 부위 건선에서 우수한 치료 효과를 증명된 치료제가 있으며,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환자들의 치료 만족도 또한 높은 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난치 부위 건선을 포함한 건선 치료에서 의료진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사항은 건선을 개선 가능한 질환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치료



조선대병원 신봉석 피부과 교수가 팔뚝에 건선이 생긴 환자를 진찰하고 있다.

에 임하는 것이다. 환자들의 경우 건선은 난치병이란 인식으로 건선 증상이 처음 나타나면 자가적인 치료나 민간요법을 먼저 시도해보는 경우가 많으나, 건선은 조기에 치료할수록 개선 효과가 높은 질환이다. 또 최근에는 생물학적 제제의 등장으로 전신 질환 건선의 포괄적 치료가 가능해진 상황이라,

꾸준히만 치료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건선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발견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방문하고,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건협, 광주일맥원서 무료건강검진 실시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지부는 최근 광주일맥원아동들을 대상으로 기초검사, 폐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김동규 광주전남지부 원장은 “앞으로도 건강관리협회는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동반자로서 따뜻한 이웃의 역할도 계속 해내겠다”고 밝혔다. <건강관리협회 제공>

## 전남대병원, 한국혈전지혈학회 학술대회 우수 포스터상

### 정명호 교수 이끄는 심혈관계융합연구센터 한웅의·박대성 연구원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정명호 교수가 이끄는 ‘심혈관계융합연구센터’의 한웅의 연구원과 박대성 연구원이 ‘37회 한국혈전지혈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잇따라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

서울 세종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웅의 연구원은 ‘한국인 심근경색증 등록 연구(KAMIR-NIH)에서 ST분절상승 급성심근경색증(STEMI) 및 비ST분절상승 급성심근경색증(NSTEMI) 환자의 장기 사망률과 위험인자의 예측 및 차이’, 박대성 연구원은 ‘항혈전 BVS(생체분해성 지지체 스텐트): 돼지모델에서 새로운 얇은 스트럿의 에베로리무스 BVS 개발’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전국 최고 수준의 전남대병원 심혈관계 융합연구센터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

이번에 수상한 한웅의 연구원의 연구내용은 KAMIR-NIH 중 STEMI와 NSTEMI 환자의 3년간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NSTEMI 환자가 STEMI 환자 보다 사망률이 확실히 높다는 것이

다. NSTEMI 환자들의 사망률이 높은 주요인은 좌심실 구혈률이 떨어지고, 스텐트 삽입 시술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대성 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혈관 내에서 분해되어 사라지는 BVS를 개발해 전임상 동물 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했다.

이번에 개발된 BVS는 금속 약물용출 스텐트의 문제점이었던 평생 몸속에 이식한 채 살아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장기간 항혈소판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번 연구를 이끈 심혈관계융합연구센터장인 정명호 교수는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2세대 약물용출 스텐트는 재협착 및 혈전 발생율이 낮아지고 있으나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평생 항혈소판제를 복용해야 하고 출혈의 위험성을 갖고 살아야 한다”면서 “때문에 오랜 기간 복약해야 하는 젊은층 환자, 출혈위험성이 높거나 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 항혈소판제를 장기 복용시 부담되는 환자에게는 BVS의 시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웅의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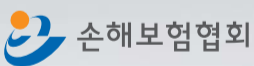


박대성 연구원

한편 전남대병원은 지난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받은 심혈관계융합연구센터 사업을 통해 개발한 금속스텐트(상품명 타이거 스텐트)에 이어 비폴리머 약물 용출 심장혈관 스텐트(상품명 타이거 레볼루션)의 임상연구를 준비하고 있어 심장혈관 스텐트의 국산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을 주도한 정명호 교수는 지금까지 1600여편의 논문을 국내외 학회지에 발표해 국내 최대 논문 발표 기록을 수립했으며, 저서 82권·특허 73건을 등록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